

『 난중일기(亂中日記) 』 를 읽고

- 남해바다의 외로운 녀 -

조행준(일반부)

전란으로 쑥대밭이 된 강토를 누구보다도 걱정하며 스스로 바다에서 함선과 함께 죽을 것을 다짐하고 묵묵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선의 바다와 백성들을 지켰던 성웅 이순신의 ‘난중일기(亂中日記)’는 가슴 절절히 그의 고뇌가 전해져오는 진실과 감동의 역사다. 늘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의 거센 물결 위에서 흔들리며 잠을 못 이루고 백성과 나라를 걱정하던 우리의 영원한 영웅 이순신은, 끝끝내 남해바다의 풍랑 속에서 밀려오는 적들과 사력을 다해 막아내는 조선 수군들의 아우성 속에서 숨져갔다.

그의 끝없는 충정과 고뇌를 조정과 임금은 외면하고 냉대했지만, 그를 따르는 부하장수들, 병졸들, 백성들은 그를 하늘같이 믿었기에 그에게 믿음과 충성을 바쳤다. 일기 속에 나타난 장군은 늘 임금에게 감사하며 더 큰 공을 세우지 못함을 송구스러워했고, 치열한 전투 중에도 임금에 대한 예를 다 하던 성실하고 겸손한 백성이며 신하였다. 명예도 권력도 욕심내지 않는 장군을 권력자들과 임금이 죄를 묻고 끌어내려도 묵묵히 자신의 갈 길을 가며 조선의 바다만을 걱정했던 장군의 끝없는 겸손과 책임감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애민과恤民의 마음으로 조정과 임금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백성을 다독이는 장군이거늘, 그에게로 향한 권력자들의 시기와 비방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양심을 지키며 책임을 다 하고 자신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의 마음으로 써 내려간 일기 속 구절들은 읽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적시고 옷깃을 여미게 한다. 아들과 아내, 어머니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을 매일 같이 일기에 토로하면서도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남해바다의 거친 풍랑 앞에서 적과 맞섰다. 성실하면서도 진실하고 소박하게 써 내려간 장군의 하루하루의 기록 속에는 근엄한 지도자의 차가움도 있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손길 같은 다정다감함도 배어있다. 전란으로 인해 굶주리는 백성들과 부하 장졸들에 대한 애끓는 연민의 정도 절절히 드러냈던 가슴 따뜻한 인간이었다. 유독 자신과 가족에게만 엄격하고 냉정했을 뿐,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에게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갔던 그의 모습이 일기 곳곳에 나타났다. 부하들을 비롯해 해안가 주민들과 소탈하게 어울리다가도 규율을 어기는 자에게는 냉엄하고 무섭게 벌을 내리는 그는 하늘이 내린 참된 지도자의 본보기였다.

이렇듯 선공후사(先公後私), 살신성인(殺身成仁)하는 장군이였기에 보살피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애끓는 정회(情懷)는 참으로 가슴 아프다. 공무를 수행하느라 보살피지 못하는 노모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매번 일기 속에 드러내고 죄책감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여리기만 하다. 늘 인편으로 노모의 소식을 접하며 안도하고 그리워하던 그였다. 불행히도 옥고를 겪고 난 후에 백의종군하며 남도의 진영으로 내려오던 도중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슬픔은 극에 달하지만 장군은 미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풍전등화(風前燈火)같은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군대를 정비하고 위급한 나라와 백성을 위해 떠났다.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과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슬픔을 삼키며 싸움터로 떠나는 그는 진정 하늘이 내린 영웅이었다. 노모에 대한 불효의 죄를 가슴에 묻고 남해바다를 수호하러 떠나는 장군 같은 충신을 매몰차게 박대하던 무능한 벼슬아치들의 오만이 원망스럽다.

더군다나 아들 면의 전사 소식까지 접하고서 무너져 내리는 가슴과 처절한 고통을 겪는 장군의 모습은 애처롭기 그지없다. 마음 놓고 통곡하지도 못하고 바다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가엾은 범부(凡夫)일 뿐이다. 왜 신은 이토록 힘들게 적과 싸우는 장군의 지친 육체에 마음 속 고통까지 더하는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읽는 이의 가슴마저 무너져 내린다.

왜적을 맞아 싸움에 임해서는 지략과 전술을 치밀하게 구사하며 부하 장수와 병졸들을 격려하고 다독여서 해전을 승리로 이끌던 그였기에 뒤에서 버티기만 하던 명나라 장수도 그를 아낌없이 칭송하지 않았던가? 한바탕 혈전을 치르고 난 뒤에도 피곤한 몸을 누일 새도 없이 또다시 내일의 전쟁을 위한 전략 구상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의 모습이 일기 곳곳에 나타난다. 일기에 꼼꼼히 기록된 날씨는 바다에서 싸우는 수군에게는 꼭 필요한 전략지침이기에 매일 같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바다의 날씨를 읽어야 사나운 물살 위에서 싸움을 하고 병사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장군의 꼼꼼함과 치밀함이 반영된 결과이리라. 그 결과 그는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의 배를 섬멸하고, 학익진(鶴翼陣)의 전술로 왜군의 진출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전술전략으로 나라를 방어한 우리 역사상 최고의 장수로 칭송받고 있다.

그 누구의 인정도 격려도 원치 않았고, 군이 목숨을 아끼려고도 하지 않았다. 자신과 부하들을 믿고 남해바다를 오로지 자신의 죽을 곳으로 알고 밀려오는 왜적이 조선의 국토와 백성을 유린(蹂躪)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해바다에서 사력(死力)을 다 한 비장한 충무공의 최후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 온다. 지금의 우리는 그를 영웅이라고 존경해마지 않지만, 그의 외롭고 고단했던 삶의 길에 무슨 위

로가 될 수 있겠는가? 쓸쓸함과 두려움을 속으로 삭이며 거친 바다 물결 속에서 적과 맞서야했던 충무공 앞에서는 우리 모두 죄인이다. 그가 7년 전장을 누볐던, 그리하여 숨져갔던 남해 바다에는 지금도 장군과 수군들의 고단한 숨소리가 파도를 타고 흐르고 있다.

